

제2회 회당문화축제
효암 진각종 통리원장은 9월 30일부터 2일까지 율령도 도동항 광장에서 제2회 회당문화축제를 개최한다.

관문사 창건 4주년 기념식
춘광 관문사 주지는 6일 오전 11시 서울 관문사에서 천태종 서울지부 32주년과 관문사 창건 4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

대불어 창립 16주년 법회
정어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회장은 12일 오후 4시 부산 여여선원 6층에서 창립16주년 기념법회와 하루차집을 개최한다.

영남불교대학 졸업식
우학 영남불교대학 학장은 9월 25일 3층 대법당에서 2년 대학과정 4년 대학원과정 졸업식을 개최했다.

김용욱 씨 초청 특강
정우 서울 구룡사 주지는 7일 도을 김용욱 씨를 초청해 '식달타의 고행'을 주제로 강연회를 연다.

종교사회복지대표자 워크숍
지거 종교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회장은 9월 25-26일 양평 동아루에서 종교사회복지 대표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수해지역 위문품 전달
해공 영천 충효사 주지는 9월 17일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쌀 20kg짜리 300포대를 영천시와 죽장면에 전달했다.

일주문

경산지역 문화탐방
무이 경산 백천사회복지관장은 9월 24일 지역 증중 재가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경산지역 문화탐방을 실시했다.

경찰청에서 금강경 법문
자우 서울 금강사 주지는 9월 26일 경찰청 법당에서 금강경-색신을 여인 법신 여래'를 주제로 법문했다.

호국연무사 불시금 전달
휴영 진각종 대전교구청장은 9월 14일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 교육관 상량식장에서 교육관 건립 불시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미안마로 성지순례
백항기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교구본사 신도회장들과 함께 9월 26일부터 미안마 불교성지를 순례하고 3일 귀국한다.

한일요가대회서 연설
정대혁 동방불교대학장은 13-14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일요가대회' 개막식에서 '이유르베다의 재인식'과 '요가의 세계화' 주제로 연설한다.

행원문화상 시상식
주영은 행원문화재단 이사장은 9월 24일 한국일보사 13층 송현클럽에서 제11회 행원문화상 시상식을 거행했다.

제2회 NGO 명상학교
박광서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는 3-4일 서울 우이동 봉도수련원에서 제2회 NGO 명상학교를 개최한다.

금강경독송회 군법당 위문
김재홍 금강경독송회 지도법사는 9월 15-19일 21개 전방부대 군법당을 위문하고 <금강경> <마음뉘는법> 등 7만여권을 보시했다.

조선불화초본 특별전
장충식 동국대 박물관장은 12일 까지 동국대 박물관 제2전시실에서 병진스님 소장 조선불화초본 특별전을 개최한다.

'선시시삼' 출판기념회
조홍식 조계종 중앙신도회 고문은 6일 10시 30분 안성 도피안사에서 시집 <선시시삼>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제9차 화엄광장 개최
정해숙 화엄광장 좌장은 4일 오후 7시 조계사 소설법전에서 '오늘의 눈으로 불교공동체를 본다'를 주제로 제9차 화엄광장을 개최한다.

불교신문인력 총재에 선출
김정길 대한불교 전국산악인연합회 부총재는 9월 27일 서울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3대 총재에 선출됐다.

어린이 장학금 수여식
김홍국 불자기수는 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호텔 2층 장미홀에서 10명의 어린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한다.

연중 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상처받은 아이들이 사는 '동지청소년의 집'

"새 보금자리 필요해요"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 한 남자(나)가 거친 눈보라를 헤치며 길을 걸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어느 집 담장 아래에서 희미한 검은 그림자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다. 가까이 다가가니 어린 남매가 웅크리고 앉아 추위에 떨고 있었다. 홀로 된 엄마가 연년생인 그들은 버리고 떠나간 것이었다. 이 오갈 데 없는 남매를 데리고 와서 키우게 된 것이 지금의 '동지청소년의 집' 시초다.

95년 학교와 가깝고 주위 경관이 좋은 대부도에 아이 30여명이 동지를 틀었다. 부모들의 이혼 때문에 온 아이, 로 온 아이들에게 원장 스님은 야단이 나 매질은 하지 않았다. 가정의 따뜻한 울림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였다.

동지를 스님이 운영한다고 해서 정기 법회가 열리거나 기도를 강요하지는 않는다. 대신 스님 혼자 아이들 속속 위에 위치한 자현사에서 기도를 드린다. 자연스레 부처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랄 뿐이다.

여기서 고등학교를 마친 아이들은 주로 기술학교로 간다. 사회에서 혼자 독립하려면 기술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4년제 대학에도 진학시키고 싶지만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다. 비싼 학원에 보낼 능력도, 아이들의 공부를 지도해

현 숙소 철거... 공부방·장애아 편의시설 계획
소요비용 5억, 현재 재원으로 턱없이 부족



◇동지 아이들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모여 공을 친다.

줄 만한 사람도 없다. 하지만 그것보다 동지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는 건 잠시 맡겨둔 아이들을 부모들이 찾아갈 때다. 남은 아이들이 자신이 혼자 자라는 것, 버림 받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인식하곤 정신적 공황

경제 형편상 잠시 맡겨 놓은 아이, 심지어는 한밤중에 몰래 버려진 아이 등 상처받은 가슴들이 이곳으로 모여든 것이다.

경기도 안산시 대부북동에 위치한 동지청소년의 집(원장 법현)에는 현재 62명의 아이들이 산다. 유아부터 고등학교생까지 서로 다른 성과 얼굴,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한다.

한 번은 2명이 함께 가솔을 한 적이 있었다. 아이들을 찾으려 안산으로 인원으로 돌아다녔지만 허탕이었다. 그러다 파출소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이들을 찾아 가라는 것이었다. 다시 동지

상태에 빠져버리기 때문이다. 동지는 이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 현 숙소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아이들의 공부방과 PC방, 장애아를 위한 편의시설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5억 정도 비용이 예상되지만 많은 부분 부족한 실정이다. 동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기에는 아직 우리의 나뭇가지 모으기가 더 필요하다.

주소: 경기도 안산시 대부북동 121
전화번호: (032)883-9033
계좌번호: 농협053-02-100544(예금주 동지청소년의 집)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새 중국불교협 회장 일성스님은 누구?

마조 선사상 재조명에 노력

2년전 조박초 거사의 입적 이후 일찍이 중국불교협회 회장으로 거론되어 온 일성스님은 마조 선사상의 주석도량인 보봉사에서 마조 선사상의 재조명을 위해 노력해온 중국 선종의 몇 안되는 선사중의 한 분이다. 중국 근대선종의 태두인 허운(虛雲, 1840-1959년) 대사의 제자로서 강서성 운거산 진여선사 및 보봉사의 방장을 겸임하고 있는 일성 스님은 2000년 8월 17일 한중선학대회를 주회하면서 한

근대 고승 허운대사 제자... 선종 중흥 기대

국 불교계에 알려졌다. 1949년 망성현 세심사에서 출가한 스님은 1956년 강서성 운거산 진여선사에서 허운 노화상을 모시고 각고의 수행에 매진했으며, 1959년 성복 대좌상으로부터 위양종의 법을 받아 제10대 전인이 됐다. 문혁 당시의 고초를 소식(素食)으로 견디며, 불철주야 독경과 참선으로 용맹 정진한 일화는 잘 알려져 있다.

일성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진여선사는 목조선의 근본도량으로서, 신라 구산선문 중 맨 마지막 산문인 수미산문(須彌山門)과 깊은 인연을 가진 곳이다. 황해도 해주에 광조사를 열어 수미산문을 개산한 이엄진철(嚴眞澈: 870~936) 선사가 운거도용(雲居道膺: ?~902) 선사들

"외국인 함께 하는 법회 신설할 것"

국제포교사회 조우영 신임회장



국제포교사회 조우영 신임회장

"국제포교사회로 제 역할을 하려면 꾸준히 포교 활동을 펼치는 일이 중요하더라도 자격만 갖추는 회원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9월 24일 조계사불교대학 1강의실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새 회장으로 선출된 조우영 회장(미8군 1통신여단 작전운영관·사단)은 "회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국제포교사회를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외형적인 활동에 치우친 기존의 운영방식을 과감히 탈피,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도 참여하는 법회를 신설해 정기적으로 운영한다면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고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조 회장의 생각이다.

박병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서울 삼보선원 개원법회

서울 삼보선원(주지 동훈)은 9월 26일 점안식 및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수원 용주사 정락스님 등 1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법회에서 주지 스님은 "오늘 참석한 여러 사부대중의 원력이 모아져 법회가 열렸다"고 말하고 "수행정진도량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도사박물관 '양산...' 특별전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범해)은 9월 24일 부산 아시안 게임을 기념하는 '양산(梁山)의 역사와 문화 2000년' 특별전을 기획전시실 및 기증유물실에서 개최했다. 양산의 역사와 지리, '양산에서 살다간 사람들과 삶'이라는 테마로 묶인 특별전은 21일까지 이어진다.



대구 경북 본·말사 주지 연수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대구 동화사 통일대전에서 대구경북본말사 주지 연수교육이 개최됐다. 조계종 교육원이 주최한 이번 교육은 본·말사 주지 2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문화재 보존관리, 신도조직화와 활용 방안 등이 실시됐다.

"스님·불자님" 부다피아 외환카드 만들어 드립니다.

부다피아카드만의 특징

- 동국대의료원 신아 5개 약·안방 병원 진료비 5~20%감면
-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 할인
- 불교전문서점 '마아물' 할인
- 전국 유명호텔, 렌도 최고 88%할인
- 유명박물관 및 할인점 무이자 할부 2~3개월
- 외식업체할인서비스(까르네스테이션 등)
- 국내외 항공권 3% 할인
- 현대정유 오일뱅크 리터당 30원 적립
- 불행구매 누적금액에 따라 1,000원당 3원에서 10원 적립

● 부다피아 가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보시금이 적립됩니다.
● 스님, 종무원, 불자 누구나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존의 외환카드 회원도 추가, 교체가 가능합니다.

가문의 입의 현대불교신문사 불교 카드 사업단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02-725-1132 대표)02-737-8881

현대불교신문사 외환카드